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퀵 모기지

주/택/용/자/전/문

다양한 용자 상품, 전화 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즐거움 약국, 편안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감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Complete Auto Repair & Body Work
Lic. #2208A
NJ State Inspection

Tel (732) 985-9500
Fax (732) 985-7637



인병원

중증
한방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 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이진 풍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크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 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님 봉헌 축일

2020년
2월 2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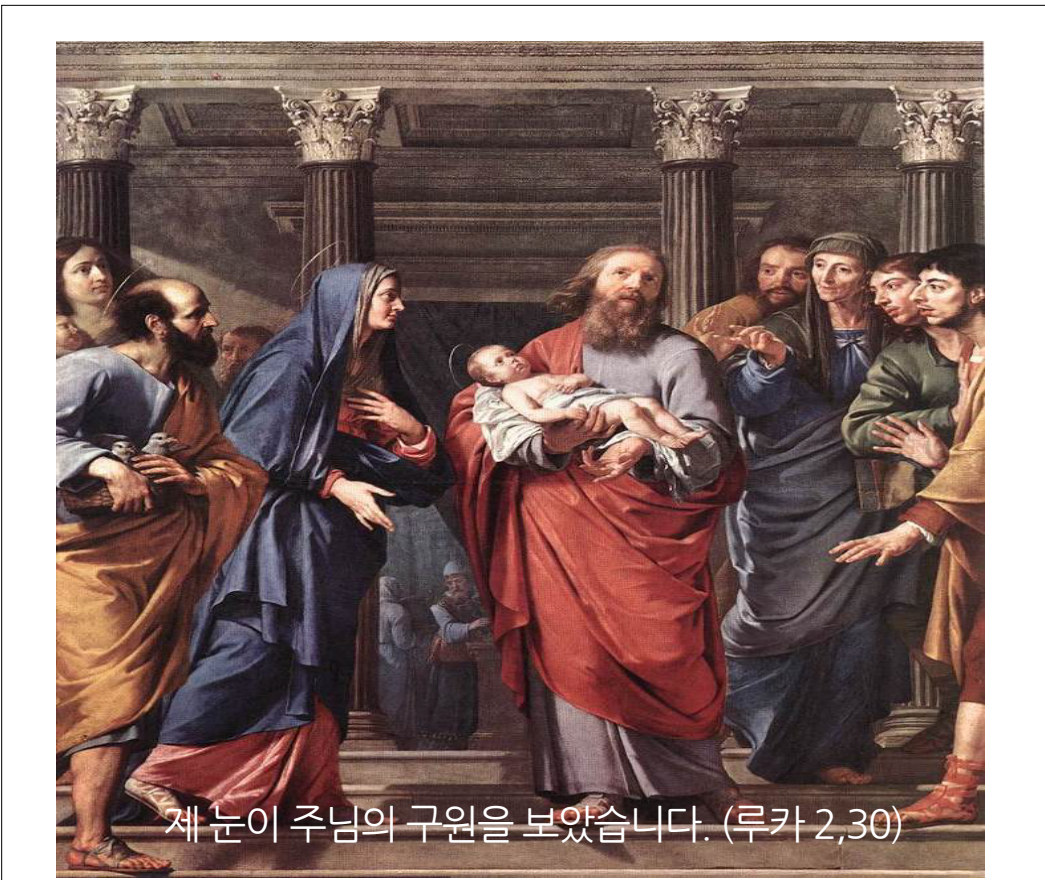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3,1-4
화답송 시편 24(23), 7.8.9.10(10, 11, 12)
복음환호송 루카 2,32 참조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복음 루카 2,22-40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후렴: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 2,14-18

전례 성가	입당성가	봉헌성가	성체성가	파견성가
	49번	212번, 512번	498번, 152번	31번
성체 분배	# 2/2 광신규, 유용희		# 2/9 백영숙, 오애희	
안내 봉사	# 2월: 모든 성인의 모후 Pr. # 3월: 사랑하올 어머니 Pr.		# 2/2: 렛거스 # 2/9: 피스브릿지 # 2/16: 사우스브런스익	
신자들의 기도	# 2/2: 허정 아나스타시아		# 1/26: 김복희 마리아 이순분 바바라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이 이사벨라, 김진자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최정인 - 안을봉(요셉) 가족
- 서상채, 신남현 (안나)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곽남영, 김부님(아델라) - 곽 엘리자벳
- 최성규, 김시영 - 최 율리아나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홍 비안네
- 최경삼(안나), 안갑수 - 최 율리아나
- 김상기(요셉), 김정이(레지나) - 김상기(요셉) 가족 황 가브리엘, 데레사
- 김상기(요셉)의 빠른 회복 - 노스브런스워 구역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구분	1차 헌금	2차 헌금	합계
KCC	\$1,431	-	\$1,431
OLM	\$3,029	-	\$3,029
합계	\$4,460	-	\$4,460

미사 참석: 208명

교무금 안내

백상현 (2)	우성현(1-3)	이경우 (1)
백원선 (0-12)	황태진 (1-2)	황분숙 (1-4)
이호용(12-1)	장수지(1-2)	손홍구(9-12)
손종철(1-2)	서경호(1-2)	한광동(1-2)
합계 \$2,555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교무금의 경우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주세요)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사목회 워크샵
- 일시 및 장소: 2월 2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메타천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9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럿거스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5일 (토) 이광재(시몬) 형제님 댁

전례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6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공지 사항

2차헌금 안내
- 오늘 미사 중 메타천 교구 공식 가톨릭 신문 The Catholic Spirit 지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월 매일미사책 배부
- 2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친교실 성물대에서 백헬렌 자매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19년 교무금 납부 증명
- 2019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친교실 도서대여
- 다음 주일(2/9)부터 도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전례분과 피정
- 일시: 2월 9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경당
- 주제: 전례의 신비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마감: 2월 15일까지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레지오 1일 피정
- 일시: 2월 9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주제: “성모영성 닦기와 담기”
- 강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소속, 현재 뉴욕 우드사이드 한인 성당에서 소임중이신 노명옥(마리룻) 수녀님
- 레지오 단원 및 협조단원과 모든 교우분들의 참여바랍니다.

유스그룹 스킵트립을 위해 씬머셋구역 \$200, 변태용(요셉)님 \$100, 김영필(안토니오)님\$50, 오애희(율리아나)님 \$50, 우성현(스테파노)님께서 \$100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례회에서 노래로 하는 연도 연습을 2월 11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주일 하건철 안토니오를 위해 기도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가족분들께서 떡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김상기 요셉,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5-40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 앙 칼 럼

봉헌

신학생 시절 어느 신부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가 왜 천주교인가? 하는 질문에 헌금을 낼 때 천원만 내서 천주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씁쓸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러다 보니, 더 씁쓸함이 밀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부님이 농담으로 하는 그 이야기에 씁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다름 아닌 ‘왜 다들 천원만 내시는 거지? 아까워서 그러시나? 자기들 쓸 돈은 다 쓰고, 아끼지 않으면서 교회에 내는 헌금은 왜 그렇게들 아까워 하는지. 참 씁쓸하다.’ 라고 생각해서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씁쓸했던 이유를 잘 알고 나니 더 씁쓸함이 밀려왔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헌금 좀 많이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액수에 조금은 집착하고 있었다는 의미 이니까요. 그런 씁쓸한 마음을 안고 ‘주님! 저 역시도 어쩌면 세속적인 생각에 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헌금의 액수 보다 거기에 담긴 정성을 더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사 중 이루어지는 헌금, 곧 “봉헌”은 주님께 대한 감사와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헌에는 하느님이 아니고선 우리의 삶, 생명이 무용지물이며,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인해 우리의 시간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봉헌하는 헌금은 교회가 하는 여러가지 일들에 쓰여집니다. 곧, 하느님의 일이 쓰여질 돈을 우리가 봉헌하면서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돈을 봉헌 하더라도, 거기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그분 구원과 사랑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이 없다면, 사회에서 하는 기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봉헌”의 의미를 전해주는 여러 말씀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자기의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봉헌하는 장면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사악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전부와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드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몸소 제물을 마련해 주셔서 이사악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봉헌의 모습은 하느님께 생명까지 바치는 봉헌이었습니다. 있는 데에서 조금을 떼어 어느 정도로 봉헌하는 것이 아닌, 삶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드리는 봉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을 봉헌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것을 봉헌하는가?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춰내며, 얼마나 진실되게 하느님을 믿으며, 내어드릴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헌은 현대 생활과 더불어 다소 그 모습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화폐의 모습으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화폐에 우리의 삶을 한껏 담아 봉헌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따라 봉헌금의 액이 올라간다는 어느 개신교의 지도자들의 말은 하느님 앞에서 거뒀된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이루는 봉헌 속에 나의 삶을 더 깊고 굳건히 담아 봉헌해 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또 그러면서 하느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삶을 봉헌해 보셨으면 합니다. 미사 전 헌금을 준비하실 때부터 거기에 나의 삶을 담는 시간을 보내며, 내 삶 안에 그분께 대한 희망과 믿음을 함께 담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묵상 나눔 (연중 제3주일)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루카 1,35)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요?

2. .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루카 2,28)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에게 도움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